

# 조선 후기 박쥐문의 도입과 왕실 내 사용 양상\*

노지현\*\*

- I. 머리말
- II. 명청대 만수절 장엄과 박쥐문의 조선 도입
- III. 조선 왕실 내 박쥐문의 사용 양상과 의미
- IV. 맺음말

## I. 머리말

박쥐문은 중국의 대표적인 길상 문양이다. 박쥐를 의미하는 한자 ‘蝠/fu’의 발음과 ‘福/fu’의 발음이 같아 상서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 두 한자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인식은 기원전부터 확인된다. 이후 한대(漢代), 박쥐가 도교 세계관에 들어오며 ‘선서(仙鼠)’로 지칭되기 시작했고,<sup>1</sup>

\* 본 논문은 노지현, 「조선 후기 백자의 박쥐문[蝙蝠文]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Ewha Womans University, History of Art)

<sup>1</sup> 한대 학자 양웅(揚雄, BC53~18)이 집필하고, 곽박(郭璞, 276~324)이 주석을 단 『輜軒使者絕代語釋別國方言』(四庫全書本)에서는 각 지역에서 박쥐를 부르는 명칭을 소개하며 박쥐 북(蝠)의 발음을 설명하기 위해 한자어 ‘복(福)’을 언급하고 ‘선서(仙鼠)’라는 이명을 설명한다. 이는 도교의 신선 사상과 연결되어 박쥐문이 장수의 의미로 해석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도교 서적과 백과사전에서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소개되었다.<sup>2</sup> 이처럼 장수의 상징으로 이해된 박쥐는 명대(明代) 시각화되어 문양과 회화 소재로 나타났으며, 청대(清代)에는 새로운 형태와 구성으로 황실의 공예품과 궁궐을 장식했다.

비슷한 시기 조선 왕실에서도 청 황실과 비슷한 용례와 조형의 박쥐문이 확인되어 흥미롭다. 양국 박쥐문 공예품의 사용 계층 또한 유사하여 조선이 청의 사례를 의도적으로 도입했을 정황을 추측하게 한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에서 박쥐문이 어떤 위계와 의미로 소비되었는지, 조선이 박쥐문을 수용한 의도는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한편, 이처럼 양국에서 다채로운 사용 양상이 관찰됨에도 지금까지 박쥐문은 추상적인 ‘복(福)’을 상징하는 길상문의 한 종류로 이해되었다.<sup>3</sup> 단독 주제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민수용과 궁수용 박쥐문 공예품의 차이를 검토하거나,<sup>4</sup> 직물에 나타난 양국 박쥐문의 양식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sup>5</sup> 최근에는 청나라와 조선의 궁궐 건축에 사용된 박쥐문을 분석해 문양이 먼저 사용된 중국에서의 조형과 유입 경로가 조명되기도 하였다.<sup>6</sup>

박쥐문은 중국에서 먼저 사용된 문양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사용 계층, 사용 목적, 문양 형태 등에 관한 이해는 이후 조선의 박쥐문 사용을 해석하기 위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조선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조선 후기 중국풍 유행의 한 흐름이라는 해석에서 더 나아가 조선 왕실이 이해한 박쥐문의 의미와 사용 의도, 도입 정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II장에서 명청대 황실의 박쥐문 사용 사례를 검토해 중국 박쥐문의 소비 계층과 사용 목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양국 공예품에 나타난 박쥐문의 조형 비교를 통해 청 공예품의 교류에서 문양의 도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 서는 도입 이후 박쥐문의 사용 사례를 살펴봄에 왕실 내에서도 구체적인 소비 계층을 파악해

2 崔豹, 『古今注』(四庫全書本); 葛洪, 『抱朴子』(四庫全書本).

3 19세기 자기 문양으로 유행한 길상문은 중국풍 문양의 유행과 결부되어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김미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강좌미술사』 33 (2009. 1), pp. 317-320; 방병선, 『조선 후기 백자연구』(일지사, 2000), p. 353; 최경화, 『朝鮮侯期 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pp. 123-127.

4 업소연, 『조선 후기 동물상징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미술비평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동저, 「조선 후기 박쥐상징 회화와 공예품의 분석-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고문화』 69 (2007. 1).

5 김순영, 박춘순, 「복식에 표현된 한·중 박쥐문양의 형태적 비교」,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5 (2006. 6).

6 장경희, 「조선과 청대 궁궐 건축에 보이는 박쥐문의 유입과 그 영향 - 19세기 중반 樂善齋와 恭王府를 중심으로 -」, 『인문과학연구』 35 (2022. 7).

문양의 위계와 의미, 사용 의도를 살펴볼 것이다.

## II. 명청대 만수절 장엄과 박쥐문의 조선 도입

### 1. 만수절 장수길상문으로 사용된 박쥐문

중국 황제의 생일인 만수절(萬壽節)에는 주빈의 탄신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청대 만수절 기간에는 장수 관련 신선, 고사 내용의 연극이 준비되고,<sup>7</sup> 황궁 안팎에는 황제에게 전하는 이국적인 선물들이 가득 준비되었다. 또한 황궁과 연경 거리에는 박쥐문을 포함한 다양한 장수 길상문이 장식되어 시각적으로 축수의 정성을 더 했다.

명청대 만수절 의례의 기초는 명 홍무 연간(洪武帝, 1368~1398) 마련되었다.<sup>8</sup> 명조는 국정 운영에 도교 제향을 도입하며 도교의 상징을 황실 장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sup>9</sup> 일찍이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이해된 박쥐 또한 문양으로 발전해 만수절을 장식했다. 명대 궁중 법도, 의복과 장식의 내용을 집대성한 『명궁사』에는 매 절기 신하들이 착용하는 의복과 소품이 정리되었다. 그중 만수절 기물의 장식으로 박쥐문이 언급된다.

탁침(鐸針)은 금, 은, 구슬, 비취, 산호 등으로 만들 수 있다. 정월 초하루[年節]에는 대길호루(大吉葫蘆) 문양과 만년길경(萬年吉慶)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탁침을 사용하며, … 만수성절(萬壽聖節)에는 만만수(萬萬壽), 홍복제천(洪福齊天) 같은 종류의 글자를 넣는데, 홍복(洪福)은 제천(齊天)의 옆에 놓고 좌우에 각기 붉은색 박쥐문(紅蝠)을 하나씩 두어 복의 뜻을 취한다. 모든 탄생(誕生), 혼례(婚禮), 존상위호(尊上徽號), 책봉대전(冊封大典)에서는 만만희(萬萬喜)를 넣는다.<sup>10</sup>

<sup>7</sup> 梁宪华, 「清宫万寿庆典戏」, 『中国典籍与文化』1 (2015. 1), p. 135-138.

<sup>8</sup> 刘伟, 「清代万寿节贡瓷浅议」, 『故宫博物院院刊』1 (2001. 2), p. 72.

<sup>9</sup> 명 태조는 진국에 있어서 주진선(周顛仙), 장중(張中)과 같은 도사의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많은 칭호를 하사했다. 여러 도교 진흥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락제(永樂帝, 1402~1424)는 『永樂大典』에 많은 도교 서적을 올리고 『道藏』을 편찬했다. 이는 정통 연간(正統帝, 1457~1464) 진국 도관에 반사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도관을 운영하며 향촌의 질서를 정리했고, 백성들은 도교 행사에 참여해 복을 빌었다. 조인수, 「중국 원명대의 사회변동과 도교 신선도」, 『미술사학』23 (2009. 8), pp. 389-390.

<sup>10</sup> 呂慈, 『明宮史』(四庫全書本)「內臣服佩」鐸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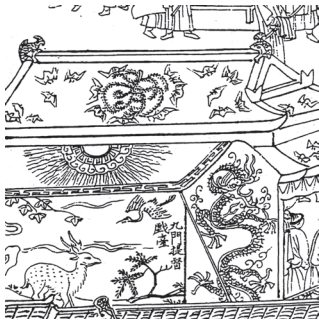


Fig. 1 『萬壽盛典初集』卷41, *Wanshou shengdian chuji*, 1717, Qing, The Palace Museum (The Commercial Press, *Wenyuange Siku quanshu* 653, p.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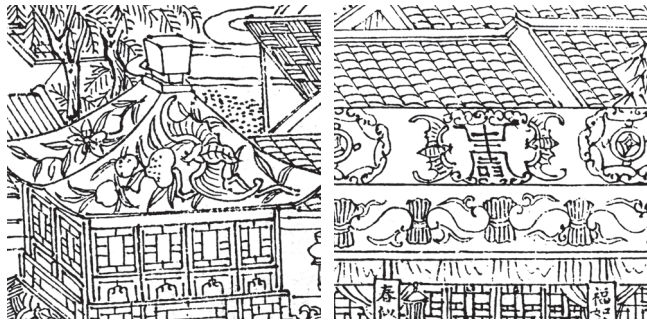


Fig. 2-1, 2-2 『八旬萬壽盛典』卷77, *Baxun wanshou shengdian*, 1789-1792, Qing, The Palace Museum (The Commercial Press, *Wenyuange Siku quanshu* 661, p. 36, 47)

탁침은 관모를 장식하는 장신구이다. 기록은 만수절 탁침의 장식으로 ‘만만수’, ‘홍복제천’ 등의 문구를 넣고, 좌우에 붉은색 박쥐문을 배치했다고 전한다. ‘홍복제천’에서 큰 복을 의미하는 ‘홍복(洪福)’과 ‘붉은색 박쥐[紅蝠]’의 발음이 같아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다.

청대에도 만수절 박쥐문 장식은 계속되었다. 강희제(康熙帝, 1661~1722)의 육순 만수절(1713), 황궁의 주변을 그린 『만수성전초집』에는 마치 축제처럼 활발한 거리의 모습이 묘사되었다. 건물들은 만수절을 기념해 박쥐문과 각종 길상문으로 가득 장식되었다(Fig. 1). 이와 같은 만수절 거리 장식은 건륭 연간(乾隆帝, 1735~1796)에도 이어졌다. 건륭제의 팔순 만수절(1790)을 묘사한 『팔순만수성전』에는 훨씬 다채로운 양상으로 발전한 길상문들이 등장한다(Fig. 2-1, Fig. 2-2). 『팔순만수성전』의 도판은 강희 연간보다 94장이 추가되고 더 근경(近景)으로 묘사되어 문양의 표현이 정교해졌다. 강희 연간 박쥐문이 수자(壽字), 복숭아, 구름, 학 등과 동반했다면, 건륭 연간에는 화훼당초, 만자(卍字), 보상화(寶相華), 팔보(八寶), 이룡(螭龍) 등 새로운 문양과 함께 조합되어 더 화려한 구성을 보인다. 실제로 건륭 연간 황실 공예품의 박쥐문은 수많은 박쥐가 비행하는 양식, 두 마리 이상의 박쥐가 문자문을 중심에 두고 모여든 양식, 기문(夔紋)처럼 변형된 박쥐문이 타 길상 상징과 연결된 양식 등 조형 발전이 확인된다.<sup>11</sup> 이와 같은 발전은 예술품을 전시하며 황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건륭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sup>11</sup> 청 박쥐문의 양식으로는 노지현, 앞의 논문 (2021), p. 20.

다.<sup>12</sup> 더 수준 높은 미적 기준을 향한 요구가 장식 예술 전반의 발전을 이끈 것이다. 만수절 박쥐문은 가경 연간(嘉慶帝, 1796~1820)에도 사용되었다. 가경제의 육순 만수절(1819) 장식에 사용할 공예품 및 건축 도안이 수록된 『만수경전휘총화양』에서도 정교한 박쥐문 도안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만수절에는 공간뿐 아니라 예물(禮物)에도 장수길상문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기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박쥐는 만복(萬福)을 의미했으며 호로형 기종에 장식되어 만수공물(萬壽貢物)이 되었다.<sup>14</sup> 나아가 황실 어른의 성절 연향에서도 박쥐문이 사용되었다. 자희태후(慈禧太后, 1835~1908)의 육순 성절을 위한 주문 제작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청 동치제(同治帝, 1861~1875)의 어머니 자희태후는 자신의 육순에 사용할 자기 5만여 건 제작을 지시한다. 그리고 황실 자기의 출납기록을 정리한 『자고당행부(盜庫堂行簿)』에는 당시 주문한 자기의 구체적인 색상과 문양, 기종이 정리되었다.<sup>15</sup>

각양(各樣) 황색 자기 반(盤), 완(碗), 충(盅), 접(碟) 총 6,740건, 황자청용반(黃瓷青龍盤)과 접은 780건, 저수궁(儲秀宮) 선방(膳房)에서 사용할 각양 황색 자기 반, 완, 충, 접, 총 21,840건, 만수무강(萬壽無疆)과 만복만수(萬福萬壽)의 황색 자기 반, 완, 충, 접은 모두 9,430건, 어선방(御膳房)에서 사용할 만수무강황지오채(萬壽無疆黃地五彩), 황지오채오복(黃地五彩五福), 홍지금수자반(紅地金壽字盤), 완, 충, 접, 모두 1,800건….

주문 가운데 어선방에서 사용할 ‘황지오채오복(黃地五彩五福)’이 주목된다. 청대에는 ‘오복(五福)’, ‘오복봉수(五蝠奉壽)’로 명명되는 박쥐문 유형이 나타나는데, 본 유형은 다섯 마리의 박쥐가 단수자문(團壽字紋)을 중심에 두고 주변부를 장식하는 양상이다. 같은 시기 제작된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품을 보면 황색 바탕[黃地]에 다섯 마리 박쥐가 묘사되어 문헌의 기물도 이

<sup>12</sup> 건륭은 자신의 소장품을 통해 통치자로서 권위와 문인으로서 격식을 드러내곤 하였다. 황궁 내 대신과 황실 가족, 외국 사신 등을 접견하던 수방재(漱芳齋)에 다보격(多寶格)을 두어 자신이 수집한 도자기, 청동기 등 여러 공예품을 전시했다. 유재빈, 「건륭제(乾隆帝)의 다보격(多寶格)과 궁정 회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25 (2020. 1), pp. 70-72.

<sup>13</sup> 『萬壽慶典彙總畫樣』은 미국 Library of Congress에서 소장하고 있다. 총 2권이며, 권1에는 서직문(西直門) 고량교(高亮橋)부터 원명원 대홍교(大紅橋)까지 지도가 수록되었다. 하천, 우물, 교량, 패루 등이 기호로 정리되었다. 권 2에는 가구 및 각종 공예품과 건축 도안이 수록되었다.

<sup>14</sup> 刘伟, 앞의 논문 (2001), p. 77.

<sup>15</sup> 古宮博物院, 『官样御瓷-故宫博物院藏清代制瓷官样与御窑瓷器』, 2007, p. 44.

와 유사한 양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Fig. 3).

소결하면, 박쥐문은 도교에서 장수의 영약으로 해석된 배경을 바탕으로 명대 만수절 장수 길상문으로 발전했다. 이후 청 강희 연간부터 건륭, 가경 연간에 만수절 장식문으로 사용된 내용을 확인했다. 나아가 박쥐문은 청 말까지 어른의 생신을 위한 문양으로 소비되며 황실의 애호가 이어졌다. 이는 당시 청나라를 방문한 조선 사절단에게도 관찰되었을 것이다.



Fig. 3 〈黃地粉彩五蝠捧壽字蓋碗〉, Huangdi fencai wufupengshouzi gaiwan, 1861-1875, Qing, H. 9cm, The Palace Museum (The Palace Museum, www.dpm.org.cn)

## 2. 공예품을 통한 중국 박쥐문의 도입

본 절에서는 조선이 청조의 공예품을 참고하여 박쥐문 도안을 도입했을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확인한 조선 왕실 공예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점의 박쥐문은 영조(英祖, 1724~1776) 말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당시의 박쥐문은 그 형태나 표현이 투박하고 같은 시기 청조의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청 박쥐문에 못지않은 우수한 조선의 박쥐문은 정조 연간(正祖, 1776~1800)에 이르러 관찰된다. 바로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6)의 회갑 원행에 사용된 가교(駕轎)의 박쥐문이다.

한편, 영조 연간의 유물은 ‘구저회갑(舊邸回甲) 현판’, 정조 연간은 어머니의 회갑연을 기념해 제작한 가교로 모두 장수 기복과 관련이 깊다. 즉,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박쥐문은 청의 사례처럼 최고위층을 사용자로 두었으며, 장수를 상징해 문양 사용에 있어 많은 부분이 공유된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조 연간 박쥐문은 문양의 형태와 구성까지도 같은 시기 청 박쥐문과 깊은 친연성을 보인다. 이는 영조 연간의 박쥐문과 구분되는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조 연간 대청 외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청 선진문물의 학습을 위해 유연한 태도로 외교에 임하였다.<sup>16</sup> 기존의 대명 의리를 의식함과 동시에 인정

<sup>16</sup> 정조 연간 변화된 대청 인식과 조청 교류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을 참조했다. 구범진, 「1780년대 清朝의 朝鮮 使臣에 대한 接待 變化」, 『명청사연구』 48 (2017. 10); 동저, 「조선의 청 황제 성질 축하와 건륭 칠순 ‘진하외교」, 『한국문화』 68 (2014.12); 김창수, 「19세기 朝鮮·淸 관계와 使臣外交」,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한승현, 「正祖 즉위 초기 對淸 외교 정책과 조정의 對淸 인식」, 『한국문화』 96, (2021. 12); 허태규, 「정조대 대청 외교와 대명 의리의 공존, 그 맥락과 의미」, 『지역과역사』 47 (2020. 10).

(人情)에 입각한 외교를 전개해 양국의 틈을 좁혀나갔다. 구체적으로 정조 작년 황제의 생일을 늦게 축하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그해 건륭의 생일에 맞춰 진하사절단을 미리 파견했고, 이외에도 인간적인 관심과 예의를 기반으로 청조를 대하는 '진하외교(進賀外交)'을 수행했다. 덕분에 조선 사신은 청조 입관 이래 처음으로 건륭제의 칠순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sup>17</sup> 이어지는 팔순 만수절 하례에도 직접 참석해 의례의 전모를 경험할 수 있었다. 즉, 청조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훨씬 확대된 것이다.<sup>18</sup>

정조 연간 사절단은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박쥐문을 포함해 다양한 청조의 축수(祝壽) 장식을 목격했다.<sup>19</sup> 건륭의 팔순 만수절이 있던 1790년(정조14) 조선 동지사(冬至使)는 정조에게 연초부터 연경(燕京) 궁궐 안팎에 새로운 의물(儀物)이 마련되고 금, 구슬, 비취 등으로 건물이 장식된 내용을 복명(復命)한다.<sup>20</sup> 당시 화려한 거리의 모습과 다양한 박쥐문 유형은 상술했던 『팔순만수성전』(Fig. 2-1, Fig. 2-2)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사절단은 정조의 의도에 따라 청나라의 장식 문화, 그리고 만수절 의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집했을 것이다. 특히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1795, 정조19)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같은 목적의 청조 의례는 황실의 축수 문화를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795년(정조19), 정조는 청조의 문물제도를 도입해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진찬의례로 거행하고, 가교 제작과 의장이 변화를 주었다.<sup>21</sup>

이처럼 정조대 새로운 대청 외교를 기점으로 조선에는 최신 기술로 제작된 청 문물이 다수 전해졌다. 사절단은 기존 공물(貢物)이나 세폐(歲幣) 이외, 황제 어필(御筆), 어제 시장(詩章), 청궁 간행 고서 및 제작 공예품 등을 하사받았다.<sup>22</sup> 건륭은 옥, 보석, 유리, 자기, 칠기 등 다양

<sup>17</sup> 구범진, 앞의 논문 (2014), pp. 229-237.

<sup>18</sup> 정조는 재위 기간 다방면에 청 문물을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수원 화성(華城)이 있다. 정조는 성역과 관련된 논에서 중국 성제의 도입을 권장하며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인다. 『日省錄』 正祖17年(1793)12月6日; 正祖18年(1794)10月19日.

<sup>19</sup> 현릉원(顯隆園) 천봉(1789), 화성(華城) 축조(1794), 을묘년(1795) 원행(園幸)이라는 큰 국사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준비된 경술년(1790) 동지사에는 2명의 화원이 편성되었다. 사절단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화원이 우선되던 전례를 생각해보면 이례적인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조가 정보 수집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으로 생각된다. 정조 연간 대청 외교 활동을 통한 청 박쥐문의 조선 유입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선행 연구는 노지현, 앞의 논문 (2021), pp. 35-53; 장경희, 앞의 논문(2022), pp. 161-175.

<sup>20</sup> 『日省錄』 正祖14年(1790)3月27日.

<sup>21</sup> 장경희, 위의 논문 (2022), pp. 167-169.

<sup>22</sup> 서윤정, 「조선 후기 외교 선물로 전해진 청과 서양의 예술과 물질문화 - 정조대 후기 사행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53 (2019. 11), p.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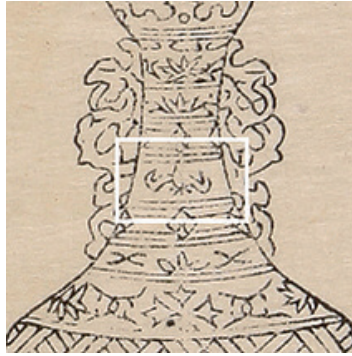


Fig. 4 〈花罈〉, 『進饌儀軌』, “Hwajun (Flower jar)”, in *Chinch'an üigwe*, 1848, Chosön, Ink and Colors on Paper, 37.1×24.2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snu.ac.kr)

Fig. 5 〈牧丹花罈〉, 『進饌儀軌』, “Moran hwajun (Peony jar)”, *Chinch'an üigwe*, 1848, Chosön, Ink and Colors on Paper, 37.1×24.2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snu.ac.kr)

Fig. 6 〈康熙款畫珐琅桃蝠紋罈〉, *Kangxikuan huafalang taofuwen ping*, 1661-1722, Qing, H. 13.6cm, The Palace Museum, (The Palace Museum, *Gugong bowuyuan cangpin daxi falangqi bian 5 qing huafalang*, p. 34)

한 재질의 예를을 전했는데, 모두 청 조판처(造辦處)와 어요창(御窯創)에서 제작된 최상품이었다. 그중 법랑기(法瑯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sup>23</sup>

법랑기는 1723년(경종3) 18점의 법랑기를 시작으로 정조 연간에 1785년(정조9), 1786년(정조 10), 1787년(정조11), 1790년(정조14) 총 4번에 걸쳐 조선에 들어왔다.<sup>24</sup> 실제 무신년(1848, 현종14) 진찬에서는 건륭 연간 기물과 매우 유사한 기형 및 장식의 내하품(內下品)이 배설되었다. 도식을 보면 두 자기의 구연부에서 박쥐문이 확인된다(Fig. 4, Fig. 5). 비록 이 기물이 정조 연간부터 사용된 것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박쥐문 법랑기가 조선으로 유입된 정황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 박쥐문은 법랑기의 소비가 청 황실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강희 연간부터 사용된 문양이었다. 관지 ‘康熙御製’가 시문된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 〈강희관화법랑도복문

<sup>23</sup> 본 연구는 법랑기의 범주로 동태(銅胎), 자태(瓷胎), 유리태(玻璃胎), 의흥태(宜興胎)의 바탕 위에 법랑 안료로 장식한 기물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1727년(옹정5), 옹정제가 궁정 기물의 양식을 세우고자 했던 바에 따라 모든 황실 기물에 양식적 공유가 이루어진 점에 연유한다. 또한 어떤 재질의 법랑기가 조선으로 유입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조선으로 동태, 유리태, 의흥태가 유입되었고, 자태양채는 확인되지만, 조판처 법랑작에서 제작한 자태화법랑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옹정 연간 사료는 『造辦各作成做活計清檔』 『記事錄』 雍正5年(1727)閏2月初3日, 김은경, 『朝鮮侯期 清代 珐瑯瓷器 受容 研究』,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p. 70에서 재인용; 조선으로 유입된 법랑기의 재질에 관한 논의는 동지, 위의 논문 (2018), pp. 98-115.

<sup>24</sup> 1785년(정조9)에는 洋磁, ‘珐瑯’ 언급이 없지만, 유리태 혹은 자태 법랑일 가능성이 있는 ‘玻璃器四件, 磁器四件’이 확인되어 함께 포함했다. 『正祖實錄』 正祖9年(1785)2月14日; 『日省錄』 正祖10年(1786)2月28日; 『日省錄』 正祖11年(1787)正月23日; [清] 『同文彙考』 『錫賚一』 乾隆55年(1790)正月.

병>(Fig. 6)의 동체에는 복숭아나무 주변을 비행하는 붉은색 박쥐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당시 법랑기는 황가의 예물로 한정되어 있었고, 황실 어른에게 효의 정성을 보일 때 주로 사용되었다.<sup>25</sup> 박쥐문 특유의 화려한 조형과 길상적 의미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축수의 정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 법랑기의 문양으로 즐겨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옹정, 건륭 연간 다수의 법랑기 전세품에서도 박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조선으로 전해지는 법랑기에도 박쥐문은 청조의 우수한 공예 기술을 선보임과 동시에 길상적 의미를 담을 수 있어 함께 장식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26</sup>

다음으로 법랑기의 유입을 전후한 조선 박쥐문의 조형을 비교하고, 정조 연간 조선 박쥐문과 청 법랑기의 박쥐문을 살펴보겠다. 왕실 내 가장 이른 시기의 박쥐문은 상술했던 영조 말 목제 현판과 정조 연간 가교 장식에서 확인된다. 주목되는 점은 법랑기의 유입 이후 정조 연간 박쥐문의 형태와 구성에 큰 변화가 관찰되는 점이다. 법랑기의 유입이 조선에서 박쥐문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772년(영조48), 영조가 자신의 잠저(齋邸)였던 창의궁 양성현에 걸기 위해 직접 쓴 사변형 구저회갑(舊邸回甲) 현판에는 네 모서리에 박쥐문이 장식되었다(Fig. 7).<sup>27</sup> 그러나, 실제 동물 박



Fig. 7 <舊邸回甲 懸板>, Hanging Board with the calligraphy by King Yeongjo, 1772, Chosŏn, 41.5×100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www.gogung.go.kr)

25 강희제는 아버지 순치제(順治帝, 1643~1661)의 효릉(孝陵)에 법랑 다구를 공양하며 정성을 표현했다. 이를 지켜 본 어린 옹정제(雍正帝, 1722~1735) 아버지의 애호를 파악하고, 강희제 육순에 '萬壽', '羣仙慶壽壽山'으로 장식된 법랑기를 진헌했다. 常建华, 『康熙朝的珐琅器礼物与皇权』, 『中国史研究』3 (2020. 9), pp. 167-169.

26 18세기 청 황제의 예물은 대부분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관을 관찰하는 목적 혹은 조판처에서 제작해 최신의 제작 기술이 반영되어 중국의 발전된 기술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서윤정, 앞의 논문 (2019), pp. 126-129.

2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박쥐문 현판 가운데 영조 연간보다 제작 시기가 올라가는 선조어필 현판 3점이 있다. 세 점에는 제작과 중보(重補), 중수(重修)가 이루어진 간지가 음각되었다. 또한 『宮闈志』의 현종 연간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세 점은 선조의 어필을 후대 모각하고, 숙종 연간 중보했으며 이후 영조에서 현종 연간 사이 중수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변 모서리의 박쥐문 또한 영조에서 현종 연간 사이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안보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의 문양과 특징』, 『조선 왕실의 현판Ⅱ』, (국립고궁박물관, 2021), p. 415.



Fig. 8 〈傳令外使徐有隣 懸板〉, Hanging Board with King Chôngjo Instructions to Sô Yurin, the Senior Office in Royal Guard, 1798, Chosôn, 112.5×213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www.gogung.go.kr)



Fig. 9 〈銅胎畫琺瑯風景蓋罐〉, Tongtai huafalang fengjing gaiguan, 1736-1796, Qing, H. 14.5cm, National Palace Museum (National Palace Museum, www.npm.gov.tw)

위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난다. 각진 뼈대 위로 얇은 가죽이 덮이는 박쥐의 특징적인 날개는 단순한 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얼굴과 몸통 또한 추상적으로 묘사되고 비율 또한 맞지 않는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실적인 청 박쥐문과도 형태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미 청 초부터 만수절에 박쥐문이 사용되고 있던바, 조선은 일찍이 청조의 장수기복문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 문물에 대한 경계와 근검을 숭상하는 정책의 연장에서 화려한 박쥐문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도입을 시도한 점은 주목해 볼 만 하다.

정조대부터 박쥐문은 큰 조형적 발전을 이룬다. 1798년(정조 22), 정조가 수원부(水原府) 유수(留守) 서유린(徐有隣, 1738~1802)에게 내린 전령을 새긴 현판 사변에 박쥐문이 묘사되었다(Fig. 8).<sup>28</sup> 얼굴-몸통-날개의 표현과 비율이 실제 동물 박쥐에 가까워졌으며, 나아가 박쥐문은 배경과 화면을 구획하는 화창으로 사용되었다. 화창은 각 사변 중심에 하나씩 배치되고 내부에 화훼문이 그려졌다. 이처럼 박쥐문으로 화창을 구성하는 양식은 건륭 연간 자주 사용되던 유형이다(Fig. 9).<sup>29</sup> 영조 연간 현판과 비교해 발전된 형태와 새로운 구성은 그사이 전해진 청 박쥐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장식의 범랑기가 회사품으로 전해지고 청 문물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며 청 박쥐문의 양식에 더욱 가까워진 것이다.

정조 연간과 건륭 연간 박쥐문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 범랑기와 조선 가교의 박쥐문을 비교해보겠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을묘년(1795, 정조19) 혜경궁 홍씨가 사용한

<sup>28</sup> 전령은 현릉원에 식재된 나무를 손상시키는 해충을 잡으라는 내용이다. 『正祖實錄』正祖22年(1798)4月25日.

<sup>29</sup> 周思中, 『清宮瓷胎画珐琅的艺术及历史研究: 1716-1789』, (清华大学 文学博士学位论文, 2006), pp. 165-171.



Fig. 10-1 <左右外門內面六片同>, 『園幸乙卯整理儀軌』, “Chwau oemun naemyön yukp’yöndong” Wõnhaeng ülmyo chõngni üigwe, 1795, Chosõn, Ink and Colors on Paper, 33.8×21.8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snu.ac.kr)

Fig. 10-2 <後面巳圖二片>, 『園幸乙卯整理儀軌』, “Humyön sado ip’yõn” Wõnhaeng ülmyo chõngni üigwe

Fig. 10-3 <後面庚圖>, 『園幸乙卯整理儀軌』, “Humyön’gyõngdo” Wõnhaeng ülmyo chõngni üigwe

가교의 전체 도면과 세부 도안이 수록되어있다. 간지(干支)와 십이지(十二支)로 장식 위치가 구분되고 사용 편수가 기술되었다. 총 26개의 세부 도안 가운데 12개의 도안에 박쥐문이 사용되었다.<sup>30</sup> 문양은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畫員)의 참여로 제작되었다.<sup>31</sup>

가교의 좌우외문(左右外門)에는 박쥐 5마리가 수자문 주변을 장식하고, 다시 화훼문이 원형으로 그 둘레에 배치되었다(Fig. 10-1). 실물에 근접한 사실적 형태, 다양하게 표현된 날개 방향, 수자문을 중심으로 둔 구성에서 건륭 연간 유리태화법랑(玻璃胎畫瑯瑯)의 문양과 깊은 친연성이 확인된다(Fig. 11). 가교 박쥐문을 둘러싼 모란당초문은 사실적인 꽃의 표현과 유기적인 넝쿨의 구성이 청초 화훼문



Fig. 11 <玻璃胎畫瑯瑯黃地福壽八楞瓶>, Bolitai huafalang huangdi fushou balengping, 1735-1796, Qing, H. 13.1cm, National Palace Museum (National Palace Museum, www.npm.gov.tw)

<sup>30</sup> 가교 박쥐문의 양식 분석은 장경희, 앞의 논문 (2022), pp. 165-175.

<sup>31</sup> 『園幸乙卯整理儀軌』(奎14532) 『賞典』조에는 화원, 별간역(別看役), 조각출초인(彫刻出草人), 조각장(彫刻匠) 등 전문 기술자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특히 참여 화원으로 기록된 최득현(崔得賢, 봉직 기간 1788~1796), 변광복(卞光復, 봉직 기간 1790~1812), 윤석근(尹碩根, 봉직 기간 1794~1797)은 모두 정조 연간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畫員)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실기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가교에 사용될 도안의 구상과 기화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각 화원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참조한 연구는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 화원 연구』 상, 하 (돌베개, 2001).



Fig. 12 <磁胎畫琺瑯錦上添花人物四寸碟>, Citai huafalang jinshangtianhua renwu sicundie, 1743, Qing, H. 1.8cm, National Palace Museum (National Palace Museum, *Stunning Decorative Porcelains from the Ch'ien-lung Reign*, p. 236)



Fig. 13 <畫琺瑯纏枝蓮八寶紋攢盒>, Huafalang chanzhi lianbabaowen zanhe, Mid Qing, H. 12.5cm, The Palace Museum (The Palace Museum, *Gugong bowuyuan cangpin daxi falangqi bian 5 qing huafalang*, p. 274)

과 유사하다.<sup>32</sup> 한편, 조선에서는 인용한 팔릉병과 유사한 기형 및 문양을 공유하는 최상품 분원자(分院磁)가 제작되기도 했다.<sup>33</sup> 이처럼 법랑기의 양식이 반영된 고급 공예품의 제작은 회사품이 조선 공예기술 발전의 촉매가 되었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

후면(後面) 사(巳)의 박쥐문은 2마리가 좌우대칭으로 표현되고 날개 형태가 당초문처럼 변형되었다(Fig. 10-2). 가교에는 전술했던 문양처럼 사실적인 형태와 공예의장적 박쥐문이 공존한다. 이는 건륭 연간 박쥐문에서도 관찰되는 특징으로 공예의장적 박쥐문은 <자태화법랑금상첨화사촌첩>의 사례처럼 날개 형태가 변형되고 좌우대칭의 특징을 보이며 화창 장식으로도 활용되었다(Fig. 12).

박쥐문은 만자문(卍字紋), 보문(寶紋), 이룡문(螭龍紋)과 조합돼 상하좌우로 대칭되어 가교의 창문이나 외문(外門) 등을 장식하기도 했다. 가교 후면 경(庚)에서는 박쥐문이 화창이 되고(Fig. 10-3), 중심에 이룡문을 두고 보문이 둘레를 장식했다. 화훼당초가 보문을 등글게 감싸며 조화를 이루는 구성은 청 중기 화법랑 공예품에서도 관찰된다(Fig. 13).

청 공예품의 도안과 동반하는 문양의 종류, 형태, 구성을 모두 공유하는 가교의 도안들은 직접적인 참고 자료의 존재를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 완성된 조선의 박쥐문 도안은 왕실 공예품의 한 양식으로 유통되어 후술할 다양한 박쥐문 공예품 사례의 초석이 되

<sup>32</sup> 강희 연간 12종류의 화훼 세트도 1년을 표현하는 십이화훼(十二花卉) 양식이 정립되며 어룡기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정립된 화훼문 양식은 옹정-건륭 연간에도 이어져 제작되었다. 김은경, 『조선 후기 백자 花卉紋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과 변용』, 『인문과학논총』 43 (2022. 5), pp. 90-93.

<sup>33</sup> 김은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清代 多角瓶의 수용양상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313 (2022. 3), pp. 101-102.

있을 것이다.<sup>34</sup>

### Ⅲ. 조선 왕실 내 박쥐문의 사용 양상과 의미

#### 1. 왕가의 축수 문양

박쥐문은 조선으로 전해짐과 동시에 가교, 현판 등 왕실 공예품에 적극적으로 장식되었다. 곧이어 19-20세기 왕실 연향에서 주빈을 포함한 최상위층이 사용하는 기물에도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는 왕가 어른에게 효를 행하기 위한 가족 중심의 연향이 다수 행해졌다.<sup>35</sup> 박쥐문은 사순, 육순 등을 축하하는 진작례(進爵禮)에서 금속제 대(臺)를 장식했다.

처음 사용이 확인되는 연향은 1809년(순조9) 진표리진찬이다. 금점(金玷)으로 명명되어 주빈인 혜경궁 홍씨의 옥배(玉杯)를 받쳤다(Fig. 14). 여덟 개 여의두형 모서리 안에 박쥐문을 배치하고 다시 내저 원각에 단수자문을 둘러싼 박쥐문이 장식되었다. 이 양식의 대는 대한제국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다른 양식으로는 1827년(순조27) 진작에서 사용된 도금대(鍍金臺)와 1876년(고종13) 개항 이후 첫 왕실 연향이었던 정축년(1877, 고종14) 진찬에서 사용된 도금대가 있다.<sup>36</sup>

연향에 사용되는 기물들은 계층 간 엄격한 구분을 두어 재질, 도안, 양식에 차이를 두었다. 박쥐문 대는 주로 옥배, 옥유이배(玉有耳杯), 산호유이배(珊瑚有耳杯), 은도금배(銀鍍金杯), 서배(犀杯) 재질의 잔을 받쳐 동조(東朝), 대전(大殿) 등 최상위층에게 배설되었다. 무신



Fig. 14 <金玷>, 『己巳進表裏進饌儀軌』, “Kümjöm (Gold Saucer)” *Kisa jinp’yori üigwe*, 1809, Chosön, Ink and Colors on Paper, H. 46cm, The British Library (National Gugak Center, *Yökchu kisa chinp’yori üigwe*, p. 329)

<sup>34</sup> 이다란은 단청 고유의 구성 방식이 적용된 칠보문이 서로 다른 작업 환경과 재질의 공예품에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화원의 활동과 화본의 교류가 문양의 유통을 이끌었음을 제안했다. 이다란, 『조선 19세기 공예품에 나타난 단청 양식 칠보문의 의의』, 『고궁문화』 15 (2022. 12), pp. 208-211.

<sup>35</sup> 지두환, 『朝鮮後期 進宴 儀禮의 變遷』, 『조선 후기 궁중연향문화 2』 (민속원, 2005), pp. 14-68.

<sup>36</sup> 18~19세기 박쥐문 도금대의 양식 변화에 관한 내용은 노지현, 앞의 논문 (2021), pp. 67-72.

년 진찬에서는 새롭게 은도금대 3좌를 제작했는데, 주빈인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에게 배설된 옥배 2좌와 서배 1좌를 받치기 위함이었다. 3좌 제작에 투입된 재료는 은 중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을 가진 천은(天銀)이었고, 내외면 도금을 위한 황금, 땀질용 황은[汗音黃銀]이 사용되었다.<sup>37</sup> 대원군(興宣大院君, 1864~1873)의 섭정 중 진행된 1868년(고종5), 1873년(고종10) 연향에서는 대원군과 여흥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 1818~1898)에까지 박쥐문 받침대가 진설되었다.<sup>38</sup> 고종(高宗, 1863~1907)이 친정(親征)을 선포한 이후부터는 세자와 세자빈을 하한으로 권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물에게 배설되었다.<sup>39</sup> 박쥐문의 장식 위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왕실 소용 백자에서도 박쥐문이 장식되었다. 한글 명문 ‘기유큰던’이 굽바닥에 짐작된 박쥐문 청화백자병은 기유년(1849, 헌종15)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sup>40</sup> <백자청화“기유큰던”銘



Fig. 15 <白磁靑畫“기유큰던”銘蝙蝠壽字唐草紋瓶>, White Porcelain Bottle with Bat, 壽 and Scroll Design and Inscription of “Küiyu k’ünyöñ” in Underglaze Cobalt Blue, 1849, Chosön, H. 36.1cm, Victoria and Albert Museum (C.668-1923) (V&A, www.vam.ac.uk)



Fig. 16 <白磁靑畫“기유큰던”銘福祿壽寶相華紋瓶>, White Porcelain Bottle with 福, 祿 and 壽 Design and Inscription of “Küiyu k’ünyöñ” in Underglaze Cobalt Blue, 1849, Chosön, H. 21.3cm, Victoria and Albert Museum (C.89-1927) (V&A, www.vam.ac.uk)

<sup>37</sup> 『進饌儀軌』(1848, 奎14372) 『器用』本所新備.

<sup>38</sup> 『進饌儀軌』(1868, 奎14374) 『排設』; 『進饌儀軌』(1873, 奎14375) 『排設』.

<sup>39</sup> 1892년(고종29) 이후 기물의 양식이 구체적으로 명기되기 시작해 주기(酒器) 사용 현황을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1892년(고종29) 9월 내진찬에서는 왕세자에게 ‘銀鍍金蝙蝠臺’, 왕세자빈에게 ‘銀鍍金蝙蝠八隅臺具’가 배설되었으며, 대한제국 선포 이후 1902년(광무6) 4월 내진연에서도 황태자와 황태자빈에게 같은 대가 배설되었다. 『進饌儀軌』(1892, 奎14428) 『排設』; 『進宴儀軌』(1902. 4, 奎14494) 『排設』.

<sup>40</sup> 본 연구는 기유년을 1849년으로 제시하였다. 정확한 연도를 추정하기 위해 함께 조사된 보상화문의 제작 사례를 살펴보았다. <백자청화“기유큰던”銘복록수보상화문병>(Fig. 16)의 보상화문은 중심에서 사방으로 꽃잎과 줄기

박쥐수자당초문병>(Fig. 15)의 동체에는 당초문으로 문양대를 이루고, 4마리 박쥐가 중심의 수자를 향해 있는 문양이 장식되었다. 같은 점각명의 <백자청화 “기유큰던” 銘복록수보상화문병>(Fig. 16)에서는 날개가 변형된 박쥐문이 화창을 이루고, 내부에 ‘복록쌍전(福祿雙全)’, ‘만사여의(萬事如意)’, ‘지란병수(芝蘭並秀)’을 상징하는 도상이 각각 묘사되었다. 그리고 박쥐문 화창과 화창 사이에는 보상화문이 장식되었다. 정제된 태토와 담청색 유약 위로 그려진 수준 높은 도안은 화원의 솜씨를 방불케 한다.

그렇다면 두 백자가 지칭하는 기유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공교롭게도 기유년에는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회갑연이 있었다. 헌종(憲宗, 1834~1849)은 1월 1일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대왕대비를 위해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올리고,<sup>41</sup> 백성의 요역과 속전(贖錢), 공인과 지방의 구환(舊還) 등을 탕감하는 전교를 내려 왕실의 경사를 모두에게 알렸다.<sup>42</sup> 회갑 정일(正日)에는 다시 치사, 전문, 표리를 친히 올린 뒤 백관(百官)과 함께 명정전(明政殿)에서 진하하고 음식을 내렸다.<sup>43</sup>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문으로 가득 찬 두 백자병은 순원왕후 회갑연에 배설되거나 예물로 진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문의 ‘큰던’은 회갑 정일 연회가 열린 창경궁 명정전으로 보인다.

한편, 기유년의 바로 한 해 전 행해진 무신년 진찬에 사용된 기물들은 상술한 순원왕후 회갑연에 박쥐문 백자병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무신년 진찬은 대왕대비의 육순, 왕대비의 망오를 기념하는 연향으로, 중국 기물의 사용이 돋보이는 특징이 있다. 물론 18세기 이후 왕실에서 중국 기물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무신년 진찬에서는 종전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배설되던 용준(龍樽) 대신 당화준(唐花罇)이 준비되었고,<sup>44</sup> 정재(呈才) 의장으로 청 전심병(淸心瓶)과 유사한 기형의 내하품, 방가요(傲哥窯) 목기(木

---

가 분화된다. 이와 같은 형태는 19세기 중반 왕실 소용 백자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청화보상화문합>(덕수 1552)에는 굽과 뚜껑 구연 안쪽에 ‘명수웃던고간이뉴십이개구’ 명문이 점각되었다. 정사년(1857) 대전[웃던] 고간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유물과 크기, 형태, 문양, 명문까지 똑같은 백자가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에서도 확인되었다. 비슷한 형태의 보상화문이 제작된 시기가 모두 19세기 중반을 지칭하고 있는바, 본문에서 언급한 두 박쥐문 명의 ‘기유’는 19세기 중반의 1849년으로 생각된다. 19세기 중반 보상화문 백자합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했다. 최경화, 앞의 논문(2014), pp. 86-87.

41 『憲宗實錄』 憲宗15年(1849)1月1日.

42 『承政院日記』 憲宗15年(1849)1月1日庚午.

43 『憲宗實錄』 憲宗15年(1849)5月15日.

44 송인희, 『1848년 진찬의궤의 당화준(唐畫罇) 사용의 의의』, 『한국문화연구』 40 (2021. 1), pp. 93-96.

器)가 새롭게 등장했다.<sup>45</sup> 또한 무구(舞具)의 장식으로 박쥐문이 따로 추가되는 등 연향 전반에 걸쳐 중국풍의 사용이 더 두드러진다.<sup>46</sup> 이와 같은 현종 연간 연향의 장식 문화는 기유년 회갑연에도 이어져 박쥐문의 사용을 이끌었을 것이다.

축수 기복의 박쥐문은 선원전(璿源殿) 제기(祭器)에도 사용되었다. 선원전 의례에 사용되는 기물을 정리한 『영정모사도감의궤』에는 5실과 6실에서 사용된 은병(銀瓶)의 도설이 있다(Fig. 17). 뚜껑과 동체 원권 둘레에 박쥐문이 장식되었다.

조선 후기-대한제국기 선원전에서는 유교식 국가 제향에 포함되지 않는 왕가 중심의 의례가 진행되었다.<sup>47</sup> 작헌례(酌獻禮)와 다례(茶禮)가 거행되었고, 특히 선왕의 생신에는 탄일다례(誕日茶禮)를 지냈다. 조선 후기의 왕실 연향과 탄일다례는 모두 어른의 생신을 기리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에 두 의례가 동일하게 지향하는 바에 따라 장수 기복의 박쥐문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원전에 올려진 제수(祭需)와 제기가 타 제향이 아닌 왕실 연향용의 구성과 유사한 점과도 연결된다.<sup>48</sup>

황제국의 장수기복문이라는 박쥐문의 배경 또한 화재 이후 새롭게 제기를 마련하는 시점에서 문양이 선택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쥐문이 장식된 은병과 함께 준비된 선원전 제기 중에는 천자국과 제후국의 엄격한 구분에서 벗어난 재질과 문양이 관찰된다.<sup>49</sup> 비록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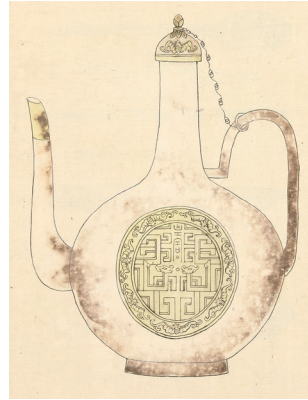


Fig. 17 <銀瓶>, 『景仰眞摹寫都監儀軌』, “Unbyong (Silver Bottle)” *Yongjyong mosa dogam üigwe*, 1901, Korean Empir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snu.ac.kr)

<sup>45</sup> 전심병에 관한 내용은 김은경, 앞의 논문(2018), pp. 111-112; 방가요 목기에 관한 내용은 송인희, 앞의 논문(2021), pp. 96-104.

<sup>46</sup> 포구문(抛毬門)의 장식 구성은 『악학궤범(樂學軌範)』에서 정리화되어 순조 연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무신년 진찬에서 박쥐문 장식을 위한 단판(緞板)이 추가로 제작된 점이 『악기풍물』조에서 확인된다. 도식을 보면 박쥐문이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전 순조 연간 포구문보다 더욱 화려해진 장식이 돋보인다. 참조한 1차 자료는 성현, 이해구 역, 『(신역)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1), p. 485; 『進饌儀軌』(1848, 奎14372) 『樂器風物』本所新備及修補.

<sup>47</sup> 선원전의 대내적 제향에 관한 논의는 다음 선행 연구를 참조했다. 구혜인, 『조선 후기·대한제국기 선원전 다례(茶禮)와 다기(茶器)』, 『한국학』 43 (2020. 6), pp. 153-164 ; 이옥,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pp. 318-327.

<sup>48</sup> 선원전 제수에는 왕실 제향에 오르지 않는 다채로운 음식들이 올라갔고, 이 음식들은 선왕이 생전에 일상과 연향에서 드시던 음식, 그리고 흥례의 전(奠)에 올리던 음식과 유사했다. 동시에 사용된 제기 또한 왕실 일상기, 연향기로 사용된 재질, 기종 구성을 보인다. 구혜인, 『조선 후기·대한 제국기 선원전 祭需와 祭器의 관계』, 『한국문화』 94 (2021. 6), p. 191.

<sup>49</sup> 구혜인, 『대한제국기 경운궁 선원전 禮器의 구성과 함의 -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속 기명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88 (2015. 12), pp. 143-148.

취문이 선원전 제기의 중심문양으로 비중 있게 다뤄진 건 아니지만 당시 차별화된 황제국의 장식문 중 하나로 여겨져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청과 이어지는 조선에서 박취문의 용례, 사용층은 문양에 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고 도입되었음을 방증한다. 동시에 진행되는 의례의 성격에 맞춰 문양이 사용된 점은 조선 왕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장식 문화를 준수했음을 보여준다.

## 2. 왕실이 애호하는 길상문으로 확장

박취문은 왕실 내 장수 기복이 주된 목적이 되는 의례에서 나아가 다양한 용처로 사용이 확장되었다. 앞선 절에서 살펴본 ‘귀유큰던’명 백자병 외에도 박취문 백자에는 ‘경인지동궁이 빵’, ‘더동궁길례시숙설소이뉴오독’, ‘신희큰던고간대둥스십’, ‘임즈큰던고간일독’의 한글 점각명이 확인된다(table 1).<sup>50</sup>

〈Table 1〉 〈한글 점각명 박취문 백자〉 White Porcelain with Hangŭl Inscription and Bat Design

Type	Jar	Dish	Bottle	Bottle	Jar	Bowl
Hangŭl Inscription	Kyöngin chaedonggung issang [경인지 동궁 이빵]	Työdonggung killyeshi suksyölso inyu odyuk [더동궁 길례시숙설소 이뉴오독]	Küiyu k'ünyön [귀유큰던]	Küiyu k'ünyön [귀유큰던]	Sinhae kündyön kogam taedyung sosim [신희큰던 고간대둥스십]	Imja kündyön kogam ildyuk [임즈큰던 고간일독]
Year	1830	1837	1849	1849	1851	1852
Designs	Peach	Flower	Su壽, Scroll (Fig. 15)	Floral Medallion and Others see(Fig. 16)	Peony	Peony
Holding Institution	The Musuem of Oriental Ceramics, Osaka	Haegang toja misulgwan	Victoria and Albert Museum	Victoria and Albert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sup>50</sup> 한글 점각명 외, ‘進(이화여대박물관)’, ‘仲(국립중앙박물관)’, ‘瑞(서울공예박물관)’의 청화명, ‘太(개인소장)’, ‘甲(호림박물관)’의 음각명이 남겨진 최고 품질의 박취문 백자도 전세한다. 관련된 내용은 노지현, 앞의 논문 (2021), pp. 92-98.

점각명이 시문 된 기종은 호, 접시, 대접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제된 태토에 청화로 박취 문이 시문되었다. '치동궁', '더동궁', '큰던' 등 궁가(宮家) 혹은 대전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가운데, '더동궁길례시...'의 명문은 1837년, 해당 백자가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의 궁가였던 저동궁(苧洞宮)에서 진행된 길례(吉禮) 즉 혼례에서 사용되었을 정황을 보여준다.<sup>51</sup> 흥미로운 점은 혼례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글 점각명 박취문 백자의 간지를 살펴보면 지시하는 경인년(1830, 순조30), 1837년(헌종3), 신해년(1851, 철종2)에는 순서대로 복온공주(福溫公主, 1818~1832), 덕온공주, 철종(哲宗, 1849~1863)의 혼례가 있었다.<sup>52</sup>

현재까지 확인된 전세품을 기준으로 19세기 왕실 혼례용 백자의 문양을 살펴보면 전서체(篆書體) 수복자문, 모란, 불수국화문 및 일본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 요소가 확인되며 혼수품에는 중국 기물의 사용이 주목된다.<sup>53</sup> 이미 18세기부터 최고위층을 위한 기물을 장식한 박취문은 그 배경과 함께 수복자문과 상통하는 의미로 혼례용 백자에까지 장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세기 왕실 내 중국풍 기물의 유행과도 연결된다.

한편, 19세기 중반 청 동치제의 대혼(大婚)을 위해 제작된 어용 자기와 깊은 문양적 친연성을 보이는 조선의 박취문 자기가 있어 주목된다. 동치제는 1872년(고종9, 동치11) 자신의 대혼에서 사용할 자기를 제작한다.<sup>54</sup> 유색에 따라 황색[黃地] 또는 붉은색[紅地] 바탕의 14분(份), 묵채(墨彩), 우하색(藕荷色), 분채(粉彩), 녹채(綠彩) 등의 9항(項)으로 구분되는 자기 총 만 여건이 제작되었는데,<sup>55</sup> 그중 9항의 '황지홍복(黃地紅蝠)'을 살펴보겠다(Fig. 18).

황지홍복문은 황색 바탕에 정면상 혹은 측면상의 몸통, 다양한 날갯짓의 박취문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었다. 문양은 14개 자기 기종에 시문되어 총 690건이 제작되었다.<sup>56</sup> 특히 완(碗), 반(盤), 접(碟)의 반상기명은 500건이 넘게 제작되었다. 전체 구성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상기는 다시 중완(中碗), 대완(大碗), 탕완(湯碗), 5촌반(五寸盤), 3촌접(三寸碟) 등 다양한 크기

<sup>51</sup> 최경화, 앞의 논문 (2014), p. 78.

<sup>52</sup> 『純祖實錄』 純祖30年(1830)2月22日; 『憲宗實錄』 憲宗3年(1837)8月13日; 『哲宗實錄』 哲宗2年(1851)9月25日.

<sup>53</sup> 최경화, 『19세기 조선 왕실 혼례용 백자의 구성과 특징』, 『한국문화연구』 39 (2020. 12), pp. 51-85.

<sup>54</sup> 동치대혼자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대혼자의 제작 배경과 과정, 명문 분석, 청말 대표적인 황실 공예품으로서 조형적 특징에 집중해 기술되었다. 古宮博物院, 앞의 책 (2007), pp. 50-55; 董健麗, 『同治大婚瓷研究』, 『故宮博物院院刊』 3 (2010. 5); 동저, 『華彩榮光 喜福相映 同治皇帝的大婚用瓷』, 『紫禁城』 4 (2019. 4); 王光堯, 『同治大婚用瓷: 晚清家國時事的一個縮影』, 『紫禁城』 1 (2006. 1); 동저, 『同治、光緒御瓷官樣與大婚用瓷、大雅齋用瓷的傳拓性』, 『美術學報』 3 (2020. 5); 張敏, 『中國官窑瓷器的最後輝煌: “同治大婚瓷”究竟多奢華』, 『藝術品鑑』 25 (2019. 9).

<sup>55</sup> 『內務府檔』 『工業類』, 董健麗, 위의 논문(2019), p. 118에서 재인용.

<sup>56</sup> 張敏, 위의 논문 (2019), p. 153.



**Fig. 18** 〈黃地描金紅蝠紋盅〉, *Huangdi miaojin hongfuwen wan*, 1861-1875, Qing, The Palace Museum (The Palace Museum, *Guanyang yuci - gugong bowuyuan cang qingdai zhici guanyangyu yuyao ciqi*, p. 114)



**Fig. 19** 〈白磁青畫蝙蝠紋大碟〉, White Porcelain Bowl with Bat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19<sup>th</sup>-20<sup>th</sup> century, Choson or Korean Empire, National Museum of Korea, Koryo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from left to right)

로 제작되었다.<sup>57</sup> 마치 한 상에 올라가는 일상기의 구성과도 같아 대혼의 연회 자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롭게도 황지홍복문 자기와 친연성이 관찰된 조선 박쥐문 또한 다양한 용적량의 백자 반상기류에 장식되었다(Fig. 19).<sup>58</sup> 현재까지 양질의 태토 위에 유사한 문양이 시문 된 경우는 대 접 4건, 병 1건을 확인했다. 문양뿐만 아니라 기종까지 공유된 점, 그리고 모본으로 보이는 청 자기가 갖는 대혼자라는 배경은 조선에서 이 양식을 인지하고 도입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동치제의 대혼과 관련해서 고종은 박규수(朴珪壽, 1807~1877)를 정사로 하는 진하겸사는사절단을 파견했고, 정사의 복명 시 대혼례 전반의 위의(威儀), 의례의 절차, 황궁의 구조, 황실 의절 등에 관해 상세히 질문했다.<sup>59</sup>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국의 위격에 맞게 모든 국가 전례와 의장의 수준을 승격한 것을 고려하면, 대혼례 의장에 관한 관심은 황제국의 상징성을 취할 의도에서 개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고종은 의례 기물을 통해 군주의 위

<sup>57</sup> 완은 해완(海碗), 중완(中碗), 대완(大碗), 탕완(湯碗), 반완(飯碗), 회완(懷碗), 반은 5촌반(五寸盤), 7촌반, 9촌반, 접은 2촌접(二寸碟), 5촌접, 3촌접, 4촌접 등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이의 수선염과 화분은 기형에 따라 11종으로 구분되었다. 董健麗, 앞의 논문(2019), pp. 123-124.

<sup>58</sup> 박쥐문이 기면 전체에 장식되는 유형은 이전 건륭 연간 관요품과 도광 연간(道光帝, 1820-1850) 민요품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조선 박쥐문은 장식 영역이 외면으로 한정되는 점, 박쥐의 세부적 형태에서 동치 박쥐문과 더욱 친연성을 보인다. 더불어 동치제 이전에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어요창이 파괴되고 요업 전반이 중지된 상태였다. 소수 요장에서 자기가 제작되었으나 품질이 매우 조악했다. 그러므로 다시 관요로 복설된 이후 제작된 동치 연간의 기물이 모본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군사적 마찰이 경덕진 요업에 미친 영향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했다. 刘善庆, 叶小兰, 『军事因素对景德镇陶瓷特色产业集群形成、演变的影响研究』,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Web Based Business Management』 (2010. 9), p. 58 ; 孙建, 『天国遗粟——太平天国时期瓷器赏鉴』, 『收藏家』 6 (2020. 6), pp. 21-26.

<sup>59</sup> 『承政院日記』高宗9年(1872)12月26日.

업과 권력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sup>60</sup> 대한제국 선포 이후 설행된 연향에서는 5만여 건의 중국 자기가 사용되었으며,<sup>61</sup> 화상(華商)을 통해 다량의 중국 기물을 들여오기도 하고,<sup>62</sup> 중국 자기를 내수화하기 위해 경덕진 도공과 원료, 제작 도구 등을 직접 수입해 국내 도자기 제작 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다.<sup>63</sup>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고종이 동치대혼자를 도입한 조선 박쥐문 백자를 제작했을 정황을 방증한다. 이렇게 제작된 박쥐문 백자는 고종을 비롯한 어른의 찬상에 올려져 사용자의 권위를 드높여주었을 것이다.

## IV. 결론

박쥐문은 명청대 황제의 만수절을 장식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황실의 장수기복문으로 사용된 박쥐문을 도입해 조선 왕실을 위해 사용했다.

왕실로 한정하여 박쥐문이 본격적인 도입된 시기는 정조 연간으로 여겨진다. 이미 강희 연간부터 만수절 장식으로 박쥐문이 사용되던바, 영조 연간 박쥐문을 모방한 시도가 확인되었다. 이후 정조 연간 청과 선택적인 우호 관계가 형성된 뒤, 박쥐문은 비약적인 형태 발전을 이룬다. 특히 정조 연간 박쥐문은 건륭 연간 관요품의 박쥐문과 깊은 양식적 친연성을 보인다. 양국 최상위층 소용 공예품에서 유사성이 관찰됨에 따라 당시 조선으로 유입된 회사품에 박쥐문이 장식되고, 이것이 수용의 매개체가 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법랑기의 사례에 집중했으며, 박쥐문이 지닌 화려하고 복잡한 형태는 청의 우수한 제작 기술을 보여줄 수 있어 회사품에 즐겨 장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에서 박쥐문을 제작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박쥐문은 19세기-20세기 조선 왕실이 애호하는 문양이 되었다. 왕실 내 사용 양상을 살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양의 의미를 검토했다. 첫 번째는 왕가를 위한 장수길상문이다. 이는 중국 박쥐문의 용례와 이어지는 부분으로 조선에서 박쥐문은 최상위층의 축수를 위한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축수기복이 필요한 성절 연향, 의례에서 사용하는 기물에 박쥐문이 장식되었

<sup>60</sup> 왕실 내 기물을 통해 황제국의 상징성을 표출한 사례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이아름, 「대한제국 궁중연향의 진작 기물 연구」, 『규장각』 48 (2022. 10), pp. 264-280; 정희정, 「대한제국기 진연의 의례 음식상 공간연출과 정치적 함의」, 『미술사학연구』 287 (2015. 9), pp. 68-73.

<sup>61</sup> 『進宴儀軌』(1901, 奎14464) 「器用」; 『進宴儀軌』(1901, 고궁2764) 「器用」.

<sup>62</sup> 김은경, 「19세기 조선 왕실 소용 清代 釉上彩 瓷器 연구」, 『강좌미술사』 46 (2016. 6), pp. 153-156.

<sup>63</sup> 장효진, 「19세기 말~20세기 초 중국 요업(窯業) 공장(工匠)의 조선 도래」, 『한국문화연구』 32 (2017. 6), pp. 25-32.

다. 사용 계층에 따라 재질의 차이를 엄격하게 두었던 조선 왕실은 옥, 산호, 서 재질 기물과 함께 구성되는 금속제 받침대에 박쥐문을 시문해 주변에게 배설했다. 도자 재질의 경우, 왕실 소용의 한글 점각명 자기에 시문되었으며 왕가의 대내적 제향을 위한 선원전 제기에도 장식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조선이 청 박쥐문의 용례와 위계를 파악하고 적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왕가의 취향이 된 박쥐문이다. 축수의 문양으로 사용된 박쥐문은 나아가 왕실 내 다른 의례 기물로 장식 영역을 확장한다. 물론, 장수를 기원함은 어떤 자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덕담이지만 이것이 추가 되는 성절 외, 왕실 혼례에서도 장식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박쥐문이 왕실이 선호하는 한 취향이 되어 장식 영역이 확장된 경우로 생각된다. 더불어 황제국의 길상문이라는 배경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 문양으로 황제국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되었을 것이다. 청 동치제 박쥐문 대혼자와 같은 양식·기종으로 제작된 조선 박쥐문 백자의 존재, 그리고 조선에서 중국 자기의 적극적인 내수화를 추진했던 정황이 이를 방증한다.

본 연구는 추상적인 복으로 인지되던 박쥐문의 의미를 밝히고, 왕실 내 사용 사례를 통해 문양의 위계를 확인했다. 나아가 조선 왕실이 청조와 교류를 통해 문양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례의 목적에 맞춰 문양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실로 한정해 문양을 연구했지만, 박쥐문은 민간에서도 성행해 다양한 양식과 구성으로 발전한다. 추후 계층을 망라한 재질 별 접근을 통해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보고자 한다.

\* 주제어(keywords)\_박쥐문(Bat design), 길상문(Auspicious symbols), 장수(Longevity), 만수절(Emperor's birthday), 예물(Diplomatic gift)

■ 투고일 2022년 3월 14일 | 심사개시일 2023년 3월 22일 | 심사완료일 2023년 4월 10일 ■

## 참고문헌

### 1. 사료

『古今注』  
『內務府檔案』  
『同文彙考』  
『萬壽盛典初集』  
『明宮史』  
『八旬萬壽盛典』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景弼摹寫都監儀軌』  
『園幸乙卯整理儀軌』  
『輜軒使者絕代語釋別國方言』  
『日省錄』  
『正祖實錄』  
『造辦各作成做活計清檔』  
『進宴儀軌』(1902. 4)  
『進爵儀軌』(1873)  
『進饌儀軌』(1848)  
『進饌儀軌』(1868)  
『進饌儀軌』(1892)  
『哲宗實錄』  
『抱朴子』  
『憲宗實錄』

### 2. 한국어 문헌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 화원 연구 상·하』, 돌베개, 2001.

구병진, 「조선의 청 황제 성절 축하와 건륭 칠순 ‘진하외교」, 『한국문화』 68, 2014. 12.

\_\_\_\_\_, 「1780년대 淸朝의 朝鮮使臣에 대한 接待變化」, 『명청사연구』 48, 2017. 10.

구혜인, 「대한제국기 경운궁 선원전 禮器의 구성과 함의 -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설 속 기명을 중심으로」

- 으로, 『미술사학연구』 288, 2015. 12.
- \_\_\_\_\_, 「조선 후기·대한제국기 선원전 다례(茶禮)와 다기(茶器)」, 『한국학』 43, 2020. 6.
- \_\_\_\_\_, 「조선후기·대한 제국기 선원전 祭需와 祭器의 관계」, 『한국문화』 94, 2021. 6.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현판 Ⅱ』, 2021.
- 국립국악원, 『역주 기사진표리진찬의궤』, 2018.
- 김미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강좌미술사』 33 (2009. 1);
- 김순영, 박춘순, 「복식에 표현된 한·중 박쥐문양의 형태적 비교」,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5 (2006. 6)
- 김은경, 「19세기 조선왕실 소용 清代 釉上彩 瓷器 연구」, 『강좌미술사』 46, 2016. 6.
- \_\_\_\_\_, 「朝鮮侯期 清代 琺瑯瓷器 受容 研究」,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_\_\_\_\_,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清代 多角瓶의 수용양상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313, 2022. 3.
- \_\_\_\_\_, 「조선후기 백자 花卉紋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과 변용」, 『인문과학논총』 43, 2022. 5.
- 김창수, 「19세기 朝鮮·淸 관계와 使臣外交」,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노지현, 「조선 후기 백자의 박쥐문[蝙蝠文]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 방병선, 『조선 후기 백자연구』, 일지사, 2000.
- 서윤정, 「조선 후기 외교 선물로 전해진 청과 서양의 예술과 물질문화 - 정조대 후기 사행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53, 2019. 11.
- 성현, 이해구 역, 『(신역)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1.
- 송인희, 「1848년 진찬의궤의 당화준(唐畫樽) 사용의 의의」, 『한국문화연구』 40, 2021. 1.
- 엄소연, 「조선 후기 동물상징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미술비평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조선 후기 박쥐상징 회화와 공예품의 분석-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고문화』 69, 2007. 1.
- 유재빈, 「건륭제(乾隆帝)의 다보격(多寶格)과 궁정 회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25, 2020. 1.
- 이다란, 「조선 19세기 공예품에 나타난 단청 양식 칠보문의 의의」, 『고고문화』 15, 2022. 12.
- 이아름, 「대한제국 궁중연향의 진작 기물 연구」, 『규장각』 48, 2022. 10.
- 이욱,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장경희, 「조선과 청대 궁궐 건축에 보이는 박쥐문의 유입과 그 영향 - 19세기 중반 樂善齋와 恭王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5, 2022. 7.
- 장효진, 「19세기 말~20세기 초 중국 요업(窯業) 공장(工匠)의 조선 도래」, 『한국문화연구』 32, 2017. 6.
- 정희정, 「대한제국기 진연의 의례음식상 공간연출과 정치적 함의」, 『미술사학연구』 287, 2015. 9.
- 조인수, 「중국 원명대의 사회변동과 도교 신선도」, 『미술사학』 23, 2009. 8.
- 최경화, 「朝鮮侯期 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_\_\_\_\_, 「19세기 조선왕실 혼례용 백자의 구성과 특징」, 『한국문화연구』 39, 2020. 12.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후기 궁중연향문화 2』, 민속원, 2005.
- 한승현, 「正祖 즉위 초기 對淸 외교 정책과 조정의 對淸 인식」, 『한국문화』 96, 2021. 12.
- 허태구, 「정조대 대청 외교와 대명의리의 공존, 그 맥락과 의미」, 『지역과역사』 47, 2020. 10.

### 3. 동양어 문헌

- 古宮博物院, 『官样御瓷—故宫博物院藏清代制瓷官样与御窑瓷器』, 2007.  
\_\_\_\_\_, 『故宫博物院藏品大系 珐琅器编 5 清画珐琅』, 2011.
- 國立古宮博物院, 『華麗彩瓷—乾隆洋彩』, 2008.
- 臺灣商務印書館, 『(景印)文淵閣 四庫全書 第653册』, 1983.
- 臺灣商務印書館, 『(景印)文淵閣 四庫全書 第661册』, 1983.
- 董健丽, 「同治大婚瓷研究」, 『故宫博物院院刊』3, 2010. 5.  
\_\_\_\_\_, 「华彩荣光 喜福相映 同治皇帝的大婚用瓷」, 『紫禁城』4, 2019. 4.
- 梁宪华, 「清宫万寿庆典戏」, 『中国典籍与文化』1, 2015. 1.
- 刘善庆, 叶小兰, 「军事因素对景德镇陶瓷特色产业集群形成、演变的影响研究」,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Web Based Business Management』, 2010. 9.
- 刘伟, 「清代万寿节贡瓷浅议」, 『故宫博物院院刊』1, 2001. 2.
- 常建华, 「康熙朝的珐琅器礼物与皇权」, 『中国史研究』3, 2020. 9.
- 孙建, 「天国遗粟——太平天国时期瓷器赏鉴」, 『收藏家』6, 2020. 6.
- 王光尧, 「同治大婚用瓷:晚清家国时事的一个缩影」, 『紫禁城』1, 2006. 1.
- 王清丽, 「同治、光绪御瓷官样与大婚用瓷、大雅斋用瓷的传拓性」, 『美术学报』3, 2020. 5.
- 张敏, 「中国官窑瓷器的最后辉煌:“同治大婚瓷”究竟多奢华」, 『艺术品鉴』25, 2019. 9.
- 周思中, 「清宫瓷胎画珐琅的艺术及历史研究:1716-1789」, 清华大学 文学博士学位论文, 2006.

### 4. 데이터베이스

- 고궁박물관, [www.dpm.org.cn](http://www.dpm.org.cn)
- 고궁박물관, [www.npm.gov.tw](http://www.npm.gov.tw)
-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kyu.snu.ac.kr](http://kyu.snu.ac.kr)
- 의회도서관, [www.loc.gov](http://www.loc.gov)
-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www.vam.ac.uk](http://www.vam.ac.uk)

## References

### I. Primary Sources

*Baopuzi*

*Baxun wanshou shengdian*

*Chinch'an üigwe* (1848)

*Chinch'an üigwe* (1868)

*Chinch'an üigwe* (1892)

*Chinjak üigwe* (1873)

*Chinön üigwe* (1902, 4)

*Ch'ölchong sillok*

*Chöngjo sillok*

*Gujinzhu*

*Hönjong sillok*

*Ilsöngnok*

*Minggongshi*

*Neiwufu dangan*

*Süngjöngwön ilgi*

*Sunjo sillok*

*Tongmun hwigo*

*Wanshou shengdian chuji*

*Wönyaeng ülmyo chöngni üigwe*

*Yöngjöng mosa togam üigwe*

*Youxuan shizhe juedai yushi bieguo fangyan*

*Zaoban gezuo chengzuo huoji qingdang*

##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 Chang, kyŏnghŭi. "Chosŏn kwa Ch'ŏngtae kunggwŏl kŏnch'uk e poi nŭn pakchwimun ūi yuip kwa kŭ yŏngnyang: 19segi chungban Naksŏnje wa Kongwangbu rŭl chungsimŭro." *Inmun' kwahak yŏn'gu* 35 (July 2022): 155-189.
- Chang, Hyojin. "19segi mal~20segi ch'o Chungguk yoŏp kongjang ūi Chosŏn torae." *Hanguk munhwa yŏn'gu* 32 (June 2017): 7-38.
- Cho, Insu. "Chungguk Wŏn Myŏngtae ūi sahoe pyŏndong kwa togyo sinsŏndo." *Misulsahak* 23 (August 2009): 377-406.
- Ch'oe kyŏnghwa. "Chosŏn hugi Punwŏlli sigi kwanyo paekcha yŏn'gu." PhD diss., Ewha Womans University, 2014.
- \_\_\_\_\_. "19segi Joseonwangsil hollyeyong baekja ūi kusŏng kwa teukjing." *Hanguk munhwa yŏn'gu* 39 (December 2020): 41-92.
- Chŏng Hijŏng. "Taehanjegukki chinyŏn ūi ūiryeŭmsiksang konggan yŏnch'ul kwa chŏngch'ijŏk hamŭi." *Misulsahak yŏn'gu* 287 (September 2015): 57-81.
- Hangukak jungang yeonguwon. *chosŏn hugi kungjung yŏnhyang munhwa* 2. Sŏul: Publishing Company Minsokwon, 2005.
- Han Sŭngnyŏn (Seunghun Han). "Jŏngjo jŭgwi ch'ogi daech'ŏng oegyo jŏngch'aek' gwa jojŏng ūi daech'ŏng inshing." *Hangukmunhwa* 96 (December 2021): 137-176.
- Hŏ Taegu. "Jŏngjodae daech'ŏng oegyo wa daemyŏngŭiri ūi gongjon, gŭ maengnak' gwa ūimi." *Jiyeok gwa yeoksa* 47 (October 2020): 141-178.
- I, Arŭm. "Taehanjeguk kungjung yŏnhyang ūi chinjak kimul yŏn'gu." *Kyujanggak* 48 (October 2022): 254-284.
- I, Daran. "Chosŏn 19segi kongyep'um e nat'anantanch'ŏng yangsik Ch'ilbomun ūi ūiŭi." *Kogung munhwa* 15 (December 2022): 201-222.
- Sŏnghyŏn. *Sinyŏg Ak'akkwebŏm*. Translated by Hyegu, I. Sŏul: National Gugak Center, 2001.
- I, Uk. *Chosŏn wangsil ūi chehyang konggan*. Sŏngnam: Han'guk'ak chungyang yŏn'guwŏn, 2015.
- Kang, Kwansik. *Chosŏn hugi kungjung hwawŏn yŏn'gu*. Sŏul: Tolbegae, 2001.
- Kim, Ch'angsu. "19segi Chosŏn-Ch'ŏng kwan'gye wa sasin oegyo." PhD diss., University of Seoul, 2016.

- Kim Mikyöng. "19segi Chosön paeksa e poinün Ch'öngdae chagi üi yöngnyang." *Kangjwa misulsa* 33 (January 2009): 293-327.
- Kim, Sunyöng and Pak, Ch'unsun, "Poksig e p'yohyöndoen Han·Chung pakchwi munyang üi hyöngt'aejök pigyo." *Hanguk saenghwal kwahak hak'oeji* 15 (June 2006): 405-416.
- Kim, Ŭn'gyöng. "19segi Chosönwangsil soyong Ch'öngdae yusangch'ae chagi yön'gu." *Kangjwa misulsa* 46 (June 2016): 135-163.
- \_\_\_\_\_. "Chosön hugi ch'öngdae pömnangjagi suyong yön'gu." PhD diss., Korea University, 2018.
- \_\_\_\_\_. "19segi Chosönbaekcha e poinün Ch'öngdae tagakpyöng üi suyong yangsang kwa üimi." *Misulshak yön'gu* 313 (March 2022): 91-119.
- \_\_\_\_\_. "Chosönhugi paekja hwahwemun e poinün Ch'öngdae chagi üi yöngnyang gwa pyönyong." *Inmun' kwahak nonch'ong* 43 (May 2022): 87-120.
- Ku, Pömjin, "Chosön üi Ch'öng hwangje söngsöl ch'uk'a wa Köllyung ch'ilsun 'Chinhaeogyo'." *Han'guk munhwa* 68 (December 2014): 215-248.
- \_\_\_\_\_. "1780nyöndae Ch'öngjo üi Chosön sajin e taehan chöptae pyönhwa." *Myöngch'öngsa yön'gu* 48 (October 2017): 535-564.
- Ku, Hyein. "Taehanjegukki Kyöngun'gung Sönwönjön yegi üi kusöng kwa hamüi *Yög jög mosa dtogam ügwe*(1901) tosöl sok kimyöng ül chungsim üro." *Misulshakyön'gu* 288 (December 2015): 121-154.
- \_\_\_\_\_. "Chosön hugi-taehanjegukki Sönwönjön tarye wa tagi." *Han'guk'ak* 43 (June, 2020): 149-192.
- \_\_\_\_\_. "Chosön hugi-taehanjegukki Sönwönjön chesu wa chegi üi kwan'gye." *Hangukmunhwa* 94, (June 2021): 153-194.
- Kungnip kogung pangmulgwan. *Chosön wangsil üi hyönp'an* II. Söul: National Palace Musuem of Korea, 2021.
- Kungnip kugagwön. *Yökchu Kisa chinp'ori chinch'an üigwe*. Söul: National Gugak Center, 2018.
- No, Jihyön. "Chosön hugi paekja üi pakchwimun yön'gu."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21.
- Öm, Soyön. "Chosön hugi tongmul sangjing yön'gu." PhD diss., Hongik University, 2005.
- \_\_\_\_\_. "Chosön hugi pakchwi sangjing hoehwa wa kongyep'um üi punsök: pangmulgwan sojangp'um ül chungsim üro-." *Komunhwa* 69 (January 2007): 41-62.

- Pang, Pyöngsön. *Chosön hugi paekja yön'gu*, Söul: Ilchisa, 2000.
- Song, Inhüi. "1848 nyön chinch'an üigwe üi tanghwajun sayong üi Üiüi." *Han'guk munhwa yön'gu* 40 (January 2021): 81-132.
- Sö, Yunjöng (Seo yoon jung). "Chosön hugi oegyo sönmul lo chönhaejin Ch'öng kwa söyang üi yesul kwa mulchil munhwa: Chöngjodae hugi sahaeng ül chungsim üro." *Misulsa hakpo* 53 (November 2019): 123-150.
- Yu, Jaebin. "Kölllyungje üi Tabogyök kwa kungjöng hoehwa." *Misulsa wa sigak munhwa* 25 (January 2020): 64-99.

###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 Chang, Jianhua. "Kangxichao de falangqi liwu yu huangquan." *Zhongguoshi yanjiu* 3 (September 2020): 160-176.
- Dong, Jianli. "Tongzhi dahunci yanjiu." *Gugong bowuyuan yuankan* 3 (May 2010): 117-127.
- \_\_\_\_\_. "Huacai rongguang xifu xiangying Tongzhi huangdi de dahunyongci." *Zijin Cheng* 4 (April 2019): 132-141.
- Gugong bowuyuan. *Guanyang yuci - gugong bowuyuan cang qingdai zhici guanyang yu yuyao ciqi*. Beijing: The Palace Museum, 2007.
- \_\_\_\_\_. *Gugong bowuyuan cangpin daxi falangqi bian 5 qing huafalang*. Beijing: The Palace Museum, 2011.
- Guoli gugong bowuyuan. *Huali caici-Qianlong yangcai*. Taipei: National Palace Museum, 2008.
- Liang, Xianhua. "Qinggong wanshou qingdian xi." *Zhongguo dianji yu wenhua* 1 (January 2015): 134-138.
- Liu, Shanqing and Ye, Xiaolan. "Junshi yinsu dui jingdezhen taoci tese chanye jiqun xingcheng, yanbian de yingxiang yanjiu."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Web Based Business Management* (September 2010): 56-59.
- Liu, Wei. "Qingdai wanshoujie gongci qianyi." *Gugong bowuyuan yuankan* 1, (February 2001): 72-78.
- Sun, Jian. "Tianguo yisu: Taipingtianguo shiqi ciqi shangjian." *Shoucangjia* 1 (June 2020): 21-26.
- Taiwan shangwu yinshuguan. (*Yingyin*) *Wenyuange Siku quanshu di 653 ce*. Taipei: The Commercial

Press, Ltd., 1983.

\_\_\_\_\_. (*Yingyin*) *Wenyuange Siku quanshu di 661 ce*. Taipei: The Commercial Press, Ltd., 1983.

Wang, Guangyao. "Tongzhi dahun ci: Wanqing jiaguo shishi de yige suoying." *Zijin Cheng* 1 (January, 2006): 73-75.

Wang, Qingli. "Tongzhi, Guangxu yuciguanyang yu dahunyongci, Dayqzhaiyongcide chuantuoxing." *Meishu xuebao* 3 (May 2020): 13-17.

Zhang, Min. "Zhongguo guanyaociqi de zuihou huihuang: Tongzhi dahunci jiuqing duo shehua." *Yishu pinjian* 25 (September 2019): 148-155.

Zhou, Sizhong. "Qingong citaihuafalang de yishu ji lishi yanjiu: 1716-1789." PhD diss., Qinghua University, 2006.

#### 4. Databas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snu.ac.kr](http://kyu.snu.ac.kr)

Library of Congress, [www.loc.gov](http://www.loc.gov)

National Palace Museum, [www.npm.gov.tw](http://www.npm.gov.tw)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The Palace Museum, [www.dpm.org.cn](http://www.dpm.org.cn)

Victoria and Albert Museum, [www.vam.ac.uk](http://www.vam.ac.uk)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명청대 만수절 장수기복문으로 사용된 박쥐문을 조선 왕실이 도입한 정황과 이를 적용한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박쥐문은 중국풍 문양 혹은 추상적인 복(福)의 상징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박쥐문은 조선과 중국에서 모두 왕실 최고위층의 장수를 기원했던 고급 문양이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이른시점 확인되는 박쥐문은 영조 연간이다. 그리고 정조 연간 박쥐문은 큰 문양적 발전을 이루며 청 박쥐문에 가까워진다. 이와 같은 변화에 기반해 조선의 본격적인 문양 도입 정황을 살펴보고자 양국의 외교활동에 주목했다. 그 결과, 정조 연간 청 문물과의 교류 확대로 조선에 유입된 범랑기가 조선 박쥐문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에서는 청의 사례와 동일한 용례, 의미, 형태, 사용 계층을 보이는 박쥐문이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박쥐문은 장수기복문이며, 나아가 조선 왕실이 청조와 교류를 통해 문양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례의 목적에 맞춰 문양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Abstract

# The Introduction of Bat Design in late Chosŏn and its Use by the Royal Court

Roh, Jihyun\*

This study aims to clarify how bat design, originally developed in Ming and Qing dynasties to wish for longevity on the Imperial Birthday, were introduced to and used by the royal family of Chosŏn. Until now, bat designs of late Chosŏn were interpreted as being of Chinese influence or as common symbol of good fortune. However, in both countries, bat design could be employed only by the royal family to wish for longevity. The earliest example of bat design in Chosŏn appeared during the reign of King Yŏngjo, and by King Chŏngjo's time, it had evolved significantly to resemble Qing designs. I have focused on Chosŏn's diplomatic relations with Qing to understand this development. During the reign of King Chŏngjo, prolific cultural exchanges brought Qing enamelware to Chosŏn, which likely had impact on the use of bat design. After this period, bat design in Chosŏn was used for the same social class, with the same purpose significance, and form as in the case of Qing. In conclusion, the meaning of bat design was fully understood in Chosŏn by the royal court through cultural exchanges with Qing, and it was used accordingly, to wish for longevity.

---

\* History of Art, Ewha Womans University